

대동 원유현, 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 CEO 대상' 수상

천진영 기자 2024-10-21 09:06

혁신적 리더십과 경영으로 기업성장·지역발전 기여

대동은 지난 18일 대전 국립한밭대에서 열린 '혁신클러스터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원유현 대동 부회장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국내 미래농업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 CEO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클러스터학회는 대학 교수, 정책전문가, 기업인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산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개발 관련 연구 및 논의를 위해 2007년 창립됐다. 현재 약 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올해 '혁신 CEO 대상'을 제정해 혁신적 리더십과 경영으로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CEO에게 상을 수여했다. 평가 기준은 ▲혁신적 경영전략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적 책임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원 부회장은 2020년 대동 대표이사로 선임 후 '미래농업 리딩 기업' 기업 비전을 선포하고 70여년 농기계 1위 회사에 안주하지 않고 '업(業)의 전환'을 추진했다. 5대 미래사업은 AI기반의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AI로봇틱스, 소형 건설장비 등이다.

이를 위해 대동그룹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으로 조직 체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꾀했다. 2021년 창사 최초로 매출 1조원을 올렸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미래농업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 농기계, 로봇, 모빌리티, AI 분야의 공격적인 R&D (연구개발) 투자로 하이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작년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2026년에는 자율주행 4단계 트랙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 농업용 챗GPT를 론칭하고, AI로봇 S/W 전문 기업인 대동에이아이랩을 설립해 농업 노동력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 농업 로봇과 스마트 파밍 솔루션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유현 대동 부회장은 "산업과 지역의 혁신클러스터에 성장과 발전 방향을 이끌어가는 혁신 클러스터학회가 제정한 혁신 CEO 대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며 "대동이 만들고 있는 미래농업이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업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현 대동 부회장이 지난 18일 혁신클러스터학회 주최로 대전 국립한밭대에서 개최된 '혁신클러스터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참가해 AI 기반으로 국내 미래농업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 받아 '혁신 CEO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대동그룹>

© 톱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진영 기자 cjy@topdaily.co.kr
